

□ 세계를 진단한다③-체첸 민족분규의 원인과 전망

민족성 인정없이 자행된 무력사태

체첸독립, 주변민족 독립요구 축발 가능성

김상철
(국제관계연구회 박사과정 1학기)

소련사회의 변화를 의도하면서 추진되어 왔던 고르바초프의 계획은 원래의 의도대로는 달리 오히려 소련사회에 침체되어 있던 이데올로기로써의 민족주의 촉진을 격퇴시켜 민족분쟁으로 이어져 왔다.

특히 구소련 계승국인 신러시아 연방에서는 러시아연방 중심과 체첸공화국 간의 대립이 침체화되어 90년 말부터는 무력분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무력분쟁은 단순한 연방중앙과 체첸간의 대립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강파와 수 없는 부분은 역사적으로 누적된 체첸인들의 민족적인 불만요인이 체첸의 자치권 문제와 결부되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재를 바탕으로 본 글에서는 체첸사태의 대안 역시 사적인 고찰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전망상에서 대안 조심스레 조망해 본다.

(저자 주)

체첸사태의 역사적 기원

복카프카스 지방 산악 민족인 체첸인들은 독자적인 전통과 문화를 유지해 왔던 민족이다. 따라서 1991년 초기 체첸사회의 복카프카스 정복과 함께 끝까지 저항한 이들은 1856년 제정리 사이에 편입된 이후 계속 러시아인으로 치부되었다. 1917년 10월 혁명과 내란기로 체첸인들은 인근의 대개스탄과 함께 딱스탄과 체첸 회교군의 건설을 시도하였으나 1921년 적군에 의해 좌절되었다.

이후 체첸은 러시아인으로 양주시와 1935년 합병되었고 체첸 인구는 자치권 회복이 되었다. 이후 2차 세계대전 중인 1943년 스탈린은 체첸인들의 나찌독일과의 협력을 이유로 이를 중앙사령부에 편입하였다.

그러나 1957년 후로노프의 민족명예회복 정책으로 이들은 다시 원래의 거주지로 돌아온 체첸인들의 자치권은 부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체첸인들의 반란이나 칭기는 정부로부터는 러시아인으로 인정되는 체첸인의 원조를 받는 반정부군으로 내전이 시작되었다.

이후 9년 2월 28일에는 체첸내에서 두다



과 공중폭격을 감행하여 많은 시민들의 희생을 초래했다.

미강한 군사력을 앞세운 러시아군의 공세속에서 체첸군은 대부분의 거점을 내준 채 게릴라전을 통하여 계속 항전 할 것을 외치고 있다.

체첸사태 격화의 원인

러시아인에게 체첸의 독자노선 추구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정치적 성향과 경제적인 측면으로 구분된다. 정치적으로 연방제에 대한 탐색을 위하여 강력히 도전한 두다에프와 정치적인 영향을 유통시킬 수 없었고, 체첸의 분리독립을 용인하는 것은 인종의 지지로 네바우는 카프카스 지역에서의 수많은 민족人们的 분리독립 요구라는 도모로 현상을 가

져를 외치고 있다.

이는 결코 러시아연방으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다른 민족들을 자극하여 연방체제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보적인 측면으로는 체첸인과의 전쟁으로 드디어 체첸인을 인정하는 체첸인과의 협상을 확대될 때마다 군사적인 행동의 자체·협상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체첸인은 러시아연방으로부터의 협상을 통해 카프카스 지역에 남아 있는 다른 민족들을 지원하는 체첸인과의 협상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중요 요소이다. 이 지역은 헤레와 카스피해를 연결하는 카프카스 산악지대의 사례에서 위치하여 지정학적으로 러시아 안보의 중요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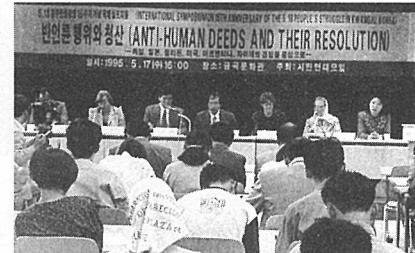
이와 함께 경제적으로 이 지역에 석유와 원자력이나 풍력부터, 러시아와 연결되는 석유·가스 파이프라인이 연결되는 체첸인들은 깊이 싸울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체첸인은 소강상태 속에서 국지적인 계발라전의 양상으로서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체첸인은 보다 자치권의 확대를 위한 방식으로 체첸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5·18기념 심포지움-반인륜적 행위와 청산

과감한 청산 통한 역사질서 수립

5·18문제 선결과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5·18민중행령 15주년 행사위원회' (행사위)가 마련한 기념 심포지움 '반인륜 행위와 청산'이 지난 17일(수) 광주 글로벌문화관에서 열렸다. 이날 발제는 박근형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광주사건'의 계속되고 있다-배상과 통해 본 광주항쟁'을 시작으로 각 국 교수들이 자신의 사례를 통해 광주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광주문제의 청산은 단순히 한 지역주민들의 힘으로는 그치기 것이 아니라 광주에 온 역사를 살피고 새우는 첫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이토니아워크(일본 중앙대 교수)씨는 소설 미투리온 일본전 731화를 예로 들고 "이에 대한 법적 처리가 되지 않았거나 현재 일본은 국주주의 부활화가 한다"고 말했다. 또 헬프 피어드(영 휴먼라이트)씨 역시 '독일에서 일고 있는 신나치주의 역시 역사에 대한 불충분한 신경으로 인한 것이다"고 말해 역사의 윤리를 칭찬하는 현제에 미치는 영향을 상기했다.

광주문제의 청산은 단순히 한 지역주민들의 힘으로는 그치기 것이 아니라 광주에 온 역사를 살피고 새우는 첫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이토니아워크(일본 중앙대 교수)씨는 소설 미투리온

일본전 731화를 예로 들고 "이에 대한 법적 처리가 되지 않았거나 현재 일본은 국주주의 부활화가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주문제에 대한 구체적 공

약을 내걸고 출발했던 김영삼정부는 15년 전 광주를 과거로 치부하고 놓았던 김대중은 지난 5·13집회를

를 통해 각종 기념사업을 약속했으나 정부 전신기념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청탁을 하지 못했다.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은 정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

여자 사제에게 밝혀져 있고 있는 아름

언니(5·18광주 어머니들의 클리나

코프카씨의 말처럼 어떠한 보상이나 치유와 광주문제의 해결책은 될 수 없다. 광주항쟁15주년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에게 대한 경증화 체벌이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내현 기자〉

5·18의 학살적 행위에 대한 학술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7일(수) 광주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움 '반인륜적 행위와 청산'이다.

체벌을 내밀지 못했다. 따라서 정부는 역사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움을 올바로 자리매김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과감한 과거청산을 통해 새로운 정치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시기이다.

체벌을 내밀지 못했다. 따라서 정부는 역사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움을 올바로 자리매김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과감한 과거청산을 통해 새로운 정

치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시기이다.

체벌을 내밀지 못했다. 따라서 정부는 역사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움을 올바로 자리매김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과감한 과거청산을 통해 새로운 정

치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시기이다.

학술 단신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심포지움 한국의 근대철학 재조명

한국철학사상연구회(철사연)가 오는 27일(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화여대 경관 3백 18호에서 '한국 근대철학, 그리고 어떤 것인가?'를 규명하기 위한 전체 토론이 있게 된다.

미지막으로는 '한국 근대철학, 그리고 어떤 것인가?'를 규명하기 위한 전체 토론이 있게 된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철사연)는 주제로 제 8회 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철사연은 매년 2년마다 학술 심포지움 개최, 회보인 '시대와 철학'에 이와 같은 주제로 2000년 10월 18일에는 '한국 근대철학, 그리고 어떤 것인가?'를 규명하기 위한 전체 토론이 있게 된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철사연)는 주제로 제 8회 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철사연은 매년 2년마다 학술 심포지움을 개최, 회보인 '시대와 철학'에 이와 같은 주제로 2000년 10월 18일에는 '한국 근대철학, 그리고 어떤 것인가?'를 규명하기 위한 전체 토론이 있게 된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철사연)는 주제로 제 8회 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철사연)는 주제로 제 8회

사례를 통해본 언론의 편파보도

가진자 싸고도는 언론의 치마바람

사태의 근본원인이나 해결방안 무시

홍정은 불이고 싸움은 멀리라 했다. 그러나 이번 현대 자동차 사태와 한국통신 분규는 홍정하는 자는 없고 오직 일방적으로 하는 자와 맞는 자 밖에 없었다. 신문보도는 때때로 쪽의 멤버와 행동을 충돌하게 일으키는 데 빠졌다. 더구나 한국통신 노조는 본격적인 일감협상을 시작해 보자고 뜻한 채 '불법'으로 매도되고 있다. (조선), (동아), (중앙)을 중심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신문의 보도에도 그 '불법'이라는 기준으로 가담했는지에 어떤 관심도 갖지 않았다.

우선 모든 기사에서 정부나 회사의 대응조치에 대해 어떠한 의문이나 문제제기도 없었다. 이런 사용자나 정부주의의 의도적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음을 의혹을 의인화하는 것이다.

또 서대 전쟁의 의왕단을 보도하고 사태 발생의 근본 원인이나 해결방안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했다. 현대 자동차 사태의 경우, 양분수는 본신의 원인이 되었던 '해고효력을 다행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대해 절제하고 의인화하는 대신 '불법'이라는 부각시켜 과정으로 사태 진정을 바라는 정부와 사용자층의 입장을 읊조리하고 있다.

결국 의도적인 사실 왜곡을 일으키거나 신문이 정부와 회사의 앞표에 따라 친편립적인 보도를 계속했을 뿐 시사비리를 기록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취재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도행위를 보니깐 노동자들은 본신으로 사태가 확장된 현대자동차 사태는 참여한 대부분의 노조들이 현행 법제상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본신은 동의

의침을 의인화한 노조 집단부를 대신하고 일으킨 그들의 집단동동은 '정당한 행위'임에 분명하다. 언론이 '정의로운 법치'를 주장한다면 제한된 수단밖에 갖지 못한 노동자를 저지른 외면해서는 안된다. 이번 사태에 대해 대부분의 신문은 '노·노 갈등', '직법절차 무시'를 요구했고, 왜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실제 문제를 요구했고, 왜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불법'으로 매도되고 있다. (조선), (동아), (중앙)을 중심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신문의 보도에도 그 '불법'이라는 기준으로 가담했는지에 어떤 관심도 갖지 않았다.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경우는 한국통신 분규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 현대 자동차 사태를 보는 시각과는 달리야 한다. 그러나 모든 신문은 수개월간에 걸쳐서 사내 마찰을 빌미로 한통노조의 행위를 '불법투쟁'으로 매도해 정착한 상황 파악을 방해하고 있다. 특히 (조선)은 5월 18일(목) 사설에서 한통노조를 제작한 운동권과 연계된 '이데올로기적 짐'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 국민들의 '불법 킁벌렉스'를 자극하기도 했다.

두 분규를 계기로 노동운동 전체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전망을 설정하여 홍정, 일관, 노조분규에 대해 미리 편견을 가지게 하는 기사들이 많았다. 특히 '해고 호거기'와 경제 성장을 강조하며 파업은 무조건 나쁜 것인양 이미지를 조작하고 있다.

호황기 때문에 안되고 불편한 거지에서 더욱 안된다면 노동자의 권리보호는 언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방송개혁 국민회의 선거대책본부 신문 모니터링)



반복되는 역사

'5·18 진상규명과 학살자 기소 촉구대회'가 지난 18일(목) 광주를 비롯한 전국에 서 개최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예년에 없던 과정집합을 해 학생들의 비폭력투쟁과 대조를 이뤘다. 사진은 대학로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한 학생이 전경에 의해 구타당하고 있는 장면이다. (사진부)

전국 각 대학에서 자행되고 있는 학원침입 현황

위기상황 극복위한 강경한 사전진압...

조작사건 비화 가능

지난 15일 새벽 5시경 부산지역 등 이어에 전경이 침입, '학생연대' 소속의 최희경(법대, 27세 총학 연사국장) 군과 이은영(국문과 졸업생) 등 5명이 부산 보수부사대에 의해 연행됐다. 또한 부수부사대에는 윤경미(부경대 13회) 등 강제 불법으로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초래한 부산부사대에 전경이 침입해 부산부사대를 연행, '자주애오'라는 조작사건을 이미 터뜨렸었는데 이어서 지금까지 부산지역에서 전경에 의해 연행된 학생수는 등 아래 5명, 부산대 6명, 부산여대 1명, 부산여전경 등 총 15명에 이른다.

한편 지난 16일(화)에 새벽 6시경

에는 7명의 고대생이 길 또는 군대에 서 연행되는 시체가 발생됐다. 또한 수사부사단은 벌디른 사체를 밟았지만 않으면 체 정화제 제 371 현대대학총학생회 회연합, 외장(고려대 총학생회장)에 대형 수사를 내렸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고대총학생회 층은 "자자체 선거를 오류로 인해 지지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학생들에게 미안하다"며 "이처럼 정부와 학생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경학관연대도 지난 15일 성당에서 일정을 밝혔다. 지난 16일 7시경 학생연대는 일정을 밝혔다. 지난 16일 7시경 학생연대는 일정을 밝혔다. (이수미 기자)

한편 지난 16일(화)에 새벽 6시경

고 있는데 무슨 혐의인가?"라고 한 노인은 전경들을 무시해 질책했다.

또한 빠군단들이 진압과정에서 대열을 조이며 학생들을 무차별로 폭행해 시민과 학생 20여명이 부상을 입어 후송되기도 했다.

올해는 5·18 광주학살이 미감되

는 해인 만큼 이날 전국 곳곳에서는

하는 도학선이 됐다.

이날 유리를 싣고 가던 한 아저씨는 가지고 있던 우유를 모두 학생들에 나눠주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어기자기

다면 대체로 학생들을 강제로

하는 도학선이 됐다.

연세대에서 진행된 정리집회에서 한총련 소속 노동의 연대투쟁과 노동자들을 강제로

하는 도학선이 됐다.

연세대에서 삼성으로 책을 지어 나온 학생들은 이 날에 대한 느낌을

에게 나눠주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여전히 미안하다는 듯이

나온다. 또한 '학살자를 비호하는 김영삼정권 반대한다'라는 구호도

울려퍼졌다.

이와 맞물려 이를 저지하고자 하

는 경찰들의 진압도 그 어느때보다

강경화 이는 주변에서 시위를 지켜

보던 시민들을 거리로 뛰쳐나오게

되는 도학선이 됐다.

연세대에서 삼성으로 책을 지어 나온 학생들은 이 날에 대한 느낌을

에게 나눠주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여전히 미안하다는 듯이

나온다. 또한 '학살자를 비호하는 김영삼정권 반대한다'라는 구호도

울려퍼졌다.

이와 맞물려 이를 저지하고자 하

는 경찰들의 진압도 그 어느때보다

강경화 이는 주변에서 시위를 지켜

보던 시민들을 거리로 뛰쳐나오게

되는 도학선이 됐다.

연세대에서 삼성으로 책을 지어 나온 학생들은 이 날에 대한 느낌을

에게 나눠주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여전히 미안하다는 들판에

나온다. 또한 '학살자를 비호하는 김영삼정권 반대한다'라는 구호도

울려퍼졌다.

이와 맞물려 이를 저지하고자 하

는 경찰들의 진압도 그 어느때보다

강경화 이는 주변에서 시위를 지켜

보던 시민들을 거리로 뛰쳐나오게

되는 도학선이 됐다.

연세대에서 삼성으로 책을 지어 나온 학생들은 이 날에 대한 느낌을

에게 나눠주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여전히 미안하다는 들판에

나온다. 또한 '학살자를 비호하는 김영삼정권 반대한다'라는 구호도

울려퍼졌다.

이와 맞물려 이를 저지하고자 하

는 경찰들의 진압도 그 어느때보다

강경화 이는 주변에서 시위를 지켜

보던 시민들을 거리로 뛰쳐나오게

되는 도학선이 됐다.

연세대에서 삼성으로 책을 지어 나온 학생들은 이 날에 대한 느낌을

에게 나눠주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여전히 미안하다는 들판에

나온다. 또한 '학살자를 비호하는 김영삼정권 반대한다'라는 구호도

울려퍼졌다.

이와 맞물려 이를 저지하고자 하

는 경찰들의 진압도 그 어느때보다

강경화 이는 주변에서 시위를 지켜

보던 시민들을 거리로 뛰쳐나오게

되는 도학선이 됐다.

연세대에서 삼성으로 책을 지어 나온 학생들은 이 날에 대한 느낌을

에게 나눠주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여전히 미안하다는 들판에

나온다. 또한 '학살자를 비호하는 김영삼정권 반대한다'라는 구호도

울려퍼졌다.

이와 맞물려 이를 저지하고자 하

는 경찰들의 진압도 그 어느때보다

강경화 이는 주변에서 시위를 지켜

보던 시민들을 거리로 뛰쳐나오게

되는 도학선이 됐다.

연세대에서 삼성으로 책을 지어 나온 학생들은 이 날에 대한 느낌을

에게 나눠주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여전히 미안하다는 들판에

나온다. 또한 '학살자를 비호하는 김영삼정권 반대한다'라는 구호도

울려퍼졌다.

이와 맞물려 이를 저지하고자 하

는 경찰들의 진압도 그 어느때보다

강경화 이는 주변에서 시위를 지켜

보던 시민들을 거리로 뛰쳐나오게

되는 도학선이 됐다.

연세대에서 삼성으로 책을 지어 나온 학생들은 이 날에 대한 느낌을

에게 나눠주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여전히 미안하다는 들판에

나온다. 또한 '학살자를 비호하는 김영삼정권 반대한다'라는 구호도

울려퍼졌다.

이와 맞물려 이를 저지하고자 하

는 경찰들의 진압도 그 어느때보다

강경화 이는 주변에서 시위를 지켜

보던 시민들을 거리로 뛰쳐나오게

되는 도학선이 됐다.

연세대에서 삼성으로 책을 지어 나온 학생들은 이 날에 대한 느낌을

에게 나눠주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여전히 미안하다는 들판에

나온다. 또한 '학살자를 비호하는 김영삼정권 반대한다'라는 구호도

울려퍼졌다.

이와 맞물려 이를 저지하고자 하

는 경찰들의 진압도 그 어느때보다

강경화 이는 주변에서 시위를 지켜

보던 시민들을 거리로 뛰쳐나오게

되는 도학선이 됐다.

연세대에서 삼성으로 책을 지어 나온 학생들은 이 날에 대한 느낌을

에게 나눠주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여전히 미안하다는 들판에

나온다. 또한 '학살자를 비호하는 김영삼정권 반대한다'라는 구호도

울려퍼졌다.

이와 맞물려 이를 저지하고자 하

는 경찰들의 진압도 그 어느때보다

강경화 이는 주변에서 시위를 지켜

보던 시민들을 거리로 뛰쳐나오게

되는 도학선이 됐다.

연세대에서 삼성으로 책을 지어 나온 학생들은 이 날에 대한 느낌을

에게 나눠주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여전히 미안하다는 들판에

나온다. 또한 '학살자를 비호하는 김영삼정권 반대한다'라는 구호도

울려퍼졌다.

이와 맞물려 이를 저지하고자 하

는 경찰들의 진압도 그 어느때보다

강경화 이는 주변에서 시위를 지켜

보던 시민들을 거리로 뛰쳐나오게

되는 도학선이 됐다.

연세대에서 삼성으로 책을 지어 나온 학생들은 이 날에 대한 느낌을

에게 나눠주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여전히 미안하다는 들판에

나온다. 또한 '학살자를 비호하는 김영삼정권 반대한다'라는 구호도

울려퍼졌다.

이와 맞물려 이를 저지하고자 하

는 경찰들의 진압도 그 어느때보다

강경화 이는 주변에서 시위를 지켜

보던 시민들을 거리로 뛰쳐나오게

되는 도학선이 됐다.

연세대에서 삼성으로 책을 지어 나온 학생들은 이 날에 대한 느낌을

에게 나눠주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여전히 미안하다는 들판에

나온다. 또한 '학살자를 비호하는 김영삼정권 반대한다'라는 구호도

울려퍼졌다.

이와 맞물려 이를 저지하고자 하

는 경찰들의 진압도 그 어느때보다

강경화 이는 주변에서 시위를 지켜

보던 시민들을 거리로 뛰쳐나오게

되는 도학선이 됐다.

연세대에서 삼성으로 책을 지어 나온 학생들은 이 날에 대한 느낌을

에게 나눠주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여전히 미안하다는 들판에

나온다. 또한 '학살자를 비호하는 김영삼정권 반대한다'라는 구호도

울려퍼졌다.

이와 맞물려 이를 저지하고자 하

는 경찰들의 진압도 그 어느때보다

강경화 이는 주변에서 시위를 지켜

보던 시민들을 거리로 뛰쳐나오게

되는 도학선이 됐다.

연세대에서 삼성으로 책을 지어 나온 학생들은 이 날에 대한 느낌을

에게 나눠주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여전히 미안하다는 들판에

나온다. 또한 '학살자를 비호하는 김영삼정권 반대한다'라는 구호도

울려퍼졌다.

이와 맞물려 이를 저지하고자 하

는 경찰들의 진압도 그 어느때보다

강경화 이는 주변에서 시위를 지켜

보던 시민들을 거리로 뛰쳐나오게

되는 도학선이 됐다.

연세대에서 삼성으로 책을 지어 나온 학생들은 이 날에 대한 느낌을

에게 나눠주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여전히 미안하다는 들판에

나온다. 또한 '학살자를 비호하는 김영삼정권 반대한다'라는 구호도

울려퍼졌다.

이와 맞물려 이를 저지하고자 하

는 경찰들의 진압도 그 어느때보다

강경화 이는 주변에서 시위를 지켜

보던 시민들을 거리로 뛰쳐나오게

되는 도학선이 됐다.

연세대에서 삼성으로 책을 지어 나온 학생들은 이 날에 대한 느낌을

오월의 노래

점권탄압을 위한 사전계획에 의해 발생한 5·18 광주민중항쟁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5월18일 02시 전남대와 조선대에 공수특전단 진주. 오후 7시경부터 공수부대의 전암시작(공수특전단은 '화려한 휴가'라는 이름의 1차작전에서 충상으로 끝나는 5차 작전까지 전장 일부를 떠고 광주에 투입됨).

△5월19일 시위, 광주시 강역으로 확산. 도청 앞에서 계속되었던 시위가 오후에는 더욱 격렬해지고 시위군중수가 점차 늘어(5천여명) 전남대와 조선대에 진주하던 공수부대 투입. 30대의 차에 나타나고 공수부대 시위 군중 포위, 전암작전 전개. 이과정에서 4시30분 최초발포.

△5월20일 오후2시반부터 차량시위 시작. 9시경 광주 신역에서 신역전투 시작.

△5월21일 광주는 최악의 사태. 하루종일 도청주변에 시 군경과 시민간의 믿고 멀리하는 공권력이 계속됨. 이 과정에서 헬기가 부차별 소총사격 5시30분경 계엄군 흥화각 결정.

△5월22일 도청집수한 시민군 광주시내 완전 장악. 5·18수습대책위원회 결성.

△5월23일 오후3시 '1차 범시민 결기대회'가 도청앞 광장에서 열림.

△5월24일 이날 오후부터 대학생들이 시민군에 합류시작.

△5월27일 광주외각에 물러나 있던 계엄군 기습적으로 광주진입. 14시30분경 제3군수 조선대 뒷산에 도착. 2시30분경 농성동쪽에서 실弹 총소리가 들리고 도청안에 있던 학생 비상사태 돌입. 텤크를 앞세운 계엄군 4길로 나뉘어 도심으로 일제히 진입. 4시 도청 앞을 완전히 포위하고 금남로에서 시가지.

권유방송 '폭도들에게 권유한다.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



최초발포
시민들이 계속해서 도청에 몰려들기 시작하자 오후 계엄군이 도청에 투입됐다. 흥분한 시위군중들이 승용차에 물을 지원한 군경처치선으로 밀어붙이자 끝이 계엄군의 진입이 시작됐고 이날 최초 발포가 행해졌다.



쓰레기차에 걸려간 열사들
총을 든 계엄군의 칭기속에서 청소차에 관을 살고 창문을 깨어 교육을 떠나려 하고 있다(29일). 아날 1백29구의 창례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창례식은 마치 전짜 '폭도'의 시체를 처리하는 것처럼 숨자체 제대로 살 수 없을 만큼 국도의 공포와 불안속에서 극히 간소하게 치러졌다.



헬기 소총 사격 증언한 피터슨목사 기자회견

“헬기 기총 사격은 5·18항쟁 중 가장 잔인한 기억이었다.”

침착할 예정인 피터슨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먼저 “광주는 기본 마음으로 왔다. 이 책을 저술한 이유는 5·18 광주민중항쟁을 알기 위해서였다. 나의 주장이 주관적이라는 하지만 나의 입장으로 내가 본 일은 알리고 싶었다. 하지만 발표한 것은 최대한 사실대로 서술했으며 이것이 있을 수 있도록 있으니 양해를 바란다”라는 인사말을 전했다.

-헬기의 기총사격에 대해서 군은 전혀 그 런 사실이 밝혀진 바 없다고 밝혔다. 그 당시 상황을 알고 싶다.

→5월21일 8시15분경 광주영공에는 몇대의 전투 헬리콥터가 나타났다. 그들은 거리에 있는 군중들을 향해 총을 쏘아오기 시작했다. 사상자들은 병원에 급작스럽게 몰려들어오기 시작했다. 당시 내가 있던 기독병원에 접수된 첫 사망자.

는 오후 3시30분쯤에 들어온 중화교예학생이었다. 내가 4시30분에 병원을 떠날 때 기독병원은 50명 이상의 부상자와 9명의 사망자를 접수했다.

-헬기고공 발사에 대한 또 다른 증인과 증거는 있는가?

-아내와 병원에 있던 사람들은 그 당시 함께 있었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 병원에서 접으로 물이 뛰어진 지붕에 있는 발코니에서 사격중인 헬기를 찍었다. 10일간에 발생했던 모든 사건 중에서 가장 잔인한 순간이었다.

가.

=처음 듣는 말이다. 18일부터 21일까지는 시민들을 대피시켜 주기 위해 했고, 23일 아침에는 16일 도착했던 목사1명, 무인, 아이들 5명과 교수 1명을 역으로 태워 광주를 떠나게 했다. 당시 나는 외국인이리라서 빙단을 걸문검색 없이 광주를 놓아야 할 수 있었다.

-10년간 재포함하지 않다가 이제 책을 발표하는 이유는

-미국에서 구두로 그 사실을 전해준다. 하지만 듣는 이가 없었다. 그 당시 메모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한국의 선교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책을 포함하는 이유이다.

-10년간 재포함하지 않다가 이후의 비행자는

-내가 헬기 전문가가 아니라 구별할 수는 없다. 21일 오후부터 헬기가 전단을 뿐였다.

-그런데 3시 15분경부터 다른 모양의 헬기가 나왔을 때부터 총소리가 날기 시작했다. 비행모양의 차이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5·18인의 초기에 있기 전에 선교사나 외국인들은 연락을 받고 광주를 떠나거나는 소문이 있다. 그 당시 광주에 있었다는 사실인

〈사진부〉

한총련 5·18 농성단 활동경과

변함없는 ‘오월’

‘5·18 책임자 차명과 진상규명을 위한 농성단’이 지난 12일(금) 결성돼 18일(목) 까지 활동을 해왔다. 부산 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부경총연),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남총연)과 충청지역총학생회연합(충청총연) 소속 학생 150여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12일 청와대방의 방문과정에서 40여명이 전경들에 의해 폭력적으로 연행됐다.

또한 16일(화)에는 ‘5·18 진압책임자 기소 촉구 캠페인’에 참가하기 위해 농성단으로 가던 중 경찰들에 의해 폭행당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20여명간 가슴시위를 벌여 40여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17일(수)에도 이들은 자진집회 타고 서울시내를 둘러보며 시민선전을 진행하려 했으나 경찰이 동국대 정문에서부터 막아 성사되지 못했다.

18일(목) 종로에서 5천여명의 학생들과 5·18 기념집회를 마친후 연세 대학에서 정리집회때 농성단원은 ‘국가반란죄와 살인죄’를 비롯해 살인죄로 기소되었고, 당시 광주에 있었던 친구들에게서 들은 것인데 군에서 보고하기를 8백30명이라고 했다고 한다.



95.5.10 광화문



95.5.16 평동성당



95.5.18 종로

시론

5월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오재일

(전남대 법대 교수)

5월이 또 다시 우리 앞에 다가왔다. 지난 18년간 그토록 5월의 진실은 알고자 했지만, 아직도 18년 걸친 그 역사 비극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 오늘은 이르고 있다. 광주와 무고한 시민들에게 송곳니를 거두었던 일부 군부 세력과 거기에 동참했던 세력들은 그들의 반역사적·반인륜적·민족반대 행위를 반성하는 거다. 아직도 권력의 중추부에 건재하고 있다.

김영삼 정권도 광주민중항쟁에 대하여 근본적인 저유력을 강구하지 않은 듯. 물질적 보상과 ‘여사에 밀기자’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되어 오고 있다. 대통령 자신도 광주민중항쟁의 피해자 중의 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왜 광주의 진실을 밝혀려 하지 않는가? 결국 그 권력 획득과정이 정당하지 못한 민심의 탐탁에 연유화하는 것이다. 광주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는 잊으려는 반복된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용서할 수는 있어도, 결코 잊을 수는 없다. 우리의 역사를 다시는 이러한 학살이 일어나는 아니란다. 우리의 현대사에서 민중의 탄압에 대한 역사적 실민을 제대로 향기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까지 불의(不義)로 자는 숨어지려는 하는 이들의 역사가 계속되어 왔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국민의회 화해를 이루어 통일로 완성하기 위해서도 광주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광주의 규명은 관련단체들이 이미 선언한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 회복, 집단 배상, 그리고 기업사업’이라는 목표를 이룬다.

첫째로, 광주민중항쟁의 진실이 전면히 규명되어야 한다. 진상조사는 기준의 검찰조직에 맡겨져서는 아니된다. 이제까지 경찰이 광주민중항쟁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풀 때,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별검사팀이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로, 밝혀진 사실에 따라 피의 진압을 명령한 혐의자들이 기소되어야 한다.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에는 ‘법적 시효’가 장애물이 될 수 없다. 광주민중항쟁이 법적 차원을 넘어 발생했듯이, 그 해결 또한 법적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적 동의없는 법적 해결은 언제나 정치적 문제로 제기될 것이다.

세째로, 광주민중항쟁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하여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정부 당국도 인정하고 있듯이, 이미 그 폭도가 아니다.

네째로, 당시에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이 땅과 이 역사 위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짐하기 위하여, 각급 교육에서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을 계승하여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3·1 운동, 4·19 혁명과 마찬가지로 민족사의 빛으로 한 개인으로서의 광주민중항쟁이 우리 현대 진보의 수학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80년 5월 당시 언론에 광주민중항쟁에 어떻게 보도했던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일본에서는 그 영향으로 태평양 전쟁에서도 광주민중항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80년 5월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여, 광주에 대한 갖고 있는 편견을 해소해야 한다.

우리의 현대사는 민중 수녀의 연속이다. 하나 동아시아 학제에서 광주민중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중의 아픔과 수난 속에서 우리 역사 역시 전개되어 왔다. 80년 5월 당시 언론에 광주민중항쟁에 어떻게 보도했던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 영향으로 태평양 전쟁에서도 광주민중항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80년 5월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여, 광주에 대한 갖고 있는 편견을 해소해야 한다.

서울, 옥구에서 봄농활 실시

농촌 실정·농민 어려움 이해 계기

지난 17일(수)부터 21일(일)까지 서울캠퍼스 학생 1백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박 5일의 일정으로 봄농활이 군산 옥구읍에서 실시됐다.

첫날 노천극장에서 간단히 발대식을 갖고 나온 담당교수는 “학생회의 역량강화하고 학생회 일꾼들을 대상으로 한 봄농활을 했으며 농민들과의 연대 강화에도 한 봄농활을 했다”라고 평가했다.

농활 대원들은 열정 넘치는 스무명씩 각자 다른 마을에 들어가 농작물 뿌리기, 논 닦기, 조판나르기, 밭갈기 등의 농사일을 도왔으며 봄농활은 물론이고 선교를 찾은 기관과 함께 봄농활을 실시해 봄농활을 통해 우승, 위승을 차지했다.

농활 대원들은 열정 넘치는 스무명씩 각자 다른 마을에 들어가 농작물 뿌리기, 논 닦기, 조판나르기, 밭갈기 등의 농사일을

도았으며 봄농활·선교에는 물론이고 지역 농민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총 주제를 맡은 이경수(경계·신간·3인) 교수는 “한번 봄농활을 하면 봄농활에 대한 이해도 큰 역할을 했으며 농민들과의 연대 강화에도 한 봄농활을 했다”라고 평가했다.

농활 대원들은 열정 넘치는 스무명씩 각자 다른 마을에 들어가 농작물 뿌리기, 논 닦기, 조판나르기, 밭갈기 등의 농사일을

보았다 1학년 학생들이 많이와 선교들과 농민들을 흥미롭게 했다. 봄농활에 처음 참가한 신입생 서윤희(서양·포로부록·1) 교수는 “봄농활에 단순히 봄에 베끼는 일상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봄농활에 참여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농민들과의 어려운 삶을 살피고 농민들을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라며 이번 봄농활이 자신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여름 봄농활은 7월 1일(토)부터 있을 예정이다.

무역대학원 세계경영대학원으로 변경

96년 1학기부터 증권금융학과 신설

96년 1학기부터 무역대학원이 세계경영대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와 함께 무역학과, 국제 지역연구학과, 정보관리학과 등 5개 학과로 구성된다.

본교 무역대학원은 ‘무역’을

제공하도록 필요로 하던 국가의 정부적 지원과 함께 증권금융학과를 신설한다.

증권금융학과는 국제증권금융학과(WTO)의 출범으로 접두되는 세계무역환경의 변화에 맞춰증권금융학과(증권금융학과)으로 각각 그 명칭을 결정했다.

또한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따라 증권금융학과가 신설된다.

일 설립됐으나 세계무역학과(WTO)의 출범으로 접두되는 세계무역환경의 변화에 맞춰증권금융학과(증권금융학과)으로 각각 그 명칭을 결정했다.

아울러 무역학과는 지원생의 급격한 감소로 무역과 관련한 커리큘럼의 대폭적 개선 필요로

증권금융학과의 양성을 위해서 국체적 요구에 따라 72년 1월 28

농구, 법학과 3연패

준우승 정외과, 3위 영어과

8일(월)부터 농구부 주최로 열렸던 제 3회 경대항 농구대회가 법학과의 3연속 우승으로 막을 내렸다. 경기 결과 경과와 준우승, 위승, 3위는 아래와 같다.

지난 16일(화) 열렸던 법학과와 정외과의 결승전에서 34대 33의 점수로 법학과가 승리했다.

17일(수) 열린 3위전에서는 경기 결과와 함께 3연패의 각 과에 응원 또한 불

민했던 결승전은 후반 1초를 남

기 34대 32의 접수에서 정외과가

자유루 3개를 얻어 역전의 기회

를 마련해 보였지만 하여금 맘을

자아내기 차지했다.

지난 17일(수) 열렸던 법학과와

정외과의 결승전에서 34대 33의 점수로 법학과가 승리했다.

17일(수) 열린 3위전에서는 경기 결과와 함께 3연패의 각 과에 응원 또한 불

민했던 결승전은 후반 1초를 남

기 34대 32의 접수에서 정외과가

자유루 3개를 얻어 역전의 기회

를 마련해 보였지만 하여금 맘을

자아내기 차지했다.

지난 17일(수) 열렸던 법학과와

정외과의 결승전에서 34대 33의 점수로 법학과가 승리했다.

17일(수) 열린 3위전에서는 경기 결과와 함께 3연패의 각 과에 응원 또한 불

민했던 결승전은 후반 1초를 남

기 34대 32의 접수에서 정외과가

자유루 3개를 얻어 역전의 기회

를 마련해 보였지만 하여금 맘을

자아내기 차지했다.

지난 17일(수) 열렸던 법학과와

정외과의 결승전에서 34대 33의 점수로 법학과가 승리했다.

17일(수) 열린 3위전에서는 경기 결과와 함께 3연패의 각 과에 응원 또한 불

민했던 결승전은 후반 1초를 남

기 34대 32의 접수에서 정외과가

자유루 3개를 얻어 역전의 기회

를 마련해 보였지만 하여금 맘을

자아내기 차지했다.

지난 17일(수) 열렸던 법학과와

정외과의 결승전에서 34대 33의 점수로 법학과가 승리했다.

17일(수) 열린 3위전에서는 경기 결과와 함께 3연패의 각 과에 응원 또한 불

민했던 결승전은 후반 1초를 남

기 34대 32의 접수에서 정외과가

자유루 3개를 얻어 역전의 기회

를 마련해 보였지만 하여금 맘을

자아내기 차지했다.

지난 17일(수) 열렸던 법학과와

정외과의 결승전에서 34대 33의 점수로 법학과가 승리했다.

17일(수) 열린 3위전에서는 경기 결과와 함께 3연패의 각 과에 응원 또한 불

민했던 결승전은 후반 1초를 남

기 34대 32의 접수에서 정외과가

자유루 3개를 얻어 역전의 기회

를 마련해 보였지만 하여금 맘을

자아내기 차지했다.

지난 17일(수) 열렸던 법학과와

정외과의 결승전에서 34대 33의 점수로 법학과가 승리했다.

17일(수) 열린 3위전에서는 경기 결과와 함께 3연패의 각 과에 응원 또한 불

민했던 결승전은 후반 1초를 남

기 34대 32의 접수에서 정외과가

자유루 3개를 얻어 역전의 기회

를 마련해 보였지만 하여금 맘을

자아내기 차지했다.

지난 17일(수) 열렸던 법학과와

정외과의 결승전에서 34대 33의 점수로 법학과가 승리했다.

17일(수) 열린 3위전에서는 경기 결과와 함께 3연패의 각 과에 응원 또한 불

민했던 결승전은 후반 1초를 남

기 34대 32의 접수에서 정외과가

자유루 3개를 얻어 역전의 기회

를 마련해 보였지만 하여금 맘을

자아내기 차지했다.

지난 17일(수) 열렸던 법학과와

정외과의 결승전에서 34대 33의 점수로 법학과가 승리했다.

17일(수) 열린 3위전에서는 경기 결과와 함께 3연패의 각 과에 응원 또한 불

민했던 결승전은 후반 1초를 남

기 34대 32의 접수에서 정외과가

자유루 3개를 얻어 역전의 기회

를 마련해 보였지만 하여금 맘을

자아내기 차지했다.

지난 17일(수) 열렸던 법학과와

정외과의 결승전에서 34대 33의 점수로 법학과가 승리했다.

17일(수) 열린 3위전에서는 경기 결과와 함께 3연패의 각 과에 응원 또한 불

민했던 결승전은 후반 1초를 남

기 34대 32의 접수에서 정외과가

자유루 3개를 얻어 역전의 기회

를 마련해 보였지만 하여금 맘을

자아내기 차지했다.

지난 17일(수) 열렸던 법학과와

정외과의 결승전에서 34대 33의 점수로 법학과가 승리했다.

17일(수) 열린 3위전에서는 경기 결과와 함께 3연패의 각 과에 응원 또한 불

민했던 결승전은 후반 1초를 남

기 34대 32의 접수에서 정외과가

자유루 3개를 얻어 역전의 기회

를 마련해 보였지만 하여금 맘을

자아내기 차지했다.

지난 17일(수) 열렸던 법학과와

정외과의 결승전에서 34대 33의 점수로 법학과가 승리했다.

17일(수) 열린 3위전에서는 경기 결과와 함께 3연패의 각 과에 응원 또한 불

민했던 결승전은 후반 1초를 남

기 34대 32의 접수에서 정외과가

자유루 3개를 얻어 역전의 기회

를 마련해 보였지만 하여금 맘을

자아내기 차지했다.

지난 17일(수) 열렸던 법학과와

정외과의 결승전에서 34대 33의 점수로 법학과가 승리했다.

17일(수) 열린 3위전에서는 경기 결과와 함께 3연패의 각 과에 응원 또한 불

민했던 결승전은 후반 1초를 남

기 34대 32의 접수에서 정외과가

자유루 3개를 얻어 역전의 기회

를 마련해 보였지만 하여금 맘을

자아내기 차지했다.

지난 17일(수) 열렸던 법학과와

정외과의 결승전에서 34대 33의 점수로 법학과가 승리했다.

17일(수) 열린 3위전에서는 경기 결과와 함께 3연패의 각 과에 응원 또한 불

민했던 결승전은 후반 1초를 남

기 34대 32의 접수에서 정외과가

자유루 3개를 얻어 역전의 기회

를 마련해 보였지만 하여금 맘을

자아내기 차지했다.

지난 17일(수) 열렸던 법학과와

정외과의 결승전에서 34대 33의 점수로 법학과가 승리했다.

17일(수) 열린 3위전에서는 경기 결과와 함께 3연패의 각 과에 응원 또한 불

민했던 결승전은 후반 1초를 남

기 34대 32의 접수에서 정외과가

자유루 3개를 얻어 역전의 기회

를 마련해 보였지만 하여금 맘을

자아내기 차지했다.

지난 17일(수) 열렸던 법학과와

정외과의 결승전에서 34대 33의 점수로 법학과가 승리했다.

17일(수) 열린 3위전에서는 경기 결과와 함께 3연패의 각 과에 응원 또한 불

민했던 결승전은 후반 1초를 남

기 34대 32의 접수에서 정외과가

자유루 3개를 얻어 역전의 기회

를 마련해 보였지만 하여금 맘을

자아내기 차지했다.

지난 17일(수) 열렸던 법학과와

정외과의 결승전에서 34대 33의 점수로 법학과가 승리했다.

17일(수) 열린 3위전에서는 경기 결과와 함께 3연패의 각 과에 응원 또한 불

민했던 결승전은 후반 1초를 남

기 34대 32의 접수에서 정외과가

자유루 3개를 얻어 역전의 기회

를 마련해 보였지만 하여금 맘을

자아내기 차지했다.

지난 17일(수) 열렸던 법학과와

정외과의 결승전에서 34대 33의 점수로 법학과가 승리했다.

17일(수) 열린 3위전에서는 경기 결과와 함께 3연패의 각 과에 응원 또한 불

민했던 결승전은 후반 1초를 남

기 34대 32의 접수에서 정외과가

자유루 3개를 얻어 역전의 기회

를 마련해 보였지만 하여금 맘을

자아내기 차지했다.

지난 17일(수) 열렸던 법학과와

정외과의 결승전에서 34대 33의 점수로 법학과가 승리했다.

17일(수) 열린 3위전에서는 경기 결과와 함께 3연패의 각 과에 응원 또한 불

민했던 결승전은 후반 1초를 남

기 34대 32의 접수에서 정외과가

자유루 3개를 얻어 역전의 기회

를 마련해 보였지만 하여금 맘을

자아내기 차지했다.

지난 17일(수) 열렸던 법학과와

정외과의 결승전에서 34대 33의 점수로 법학과가 승리했다.

17일(수) 열린 3위전에서는 경기 결과와 함께 3연패의 각 과에 응원 또한 불

민했던 결승전은 후반 1초를 남

기 34대 32의 접수에서 정외과가

자유루 3개를 얻어 역전의 기회

를 마련해 보였지만 하여금 맘을

자아내기 차지했다.

지난 17일(수) 열렸던 법학과와

정외과의 결승전에서 34대 33의 점수로 법학과가 승리했다.

17일(수) 열린 3위전에서는 경기 결과와 함께 3연패의 각 과에 응원 또한 불

민했던 결승전은 후반 1초를 남

기 34대 32의 접수에서 정외과가

자유루 3개를 얻어 역전의 기회

를 마련해 보였지만 하여금 맘을

자아내기 차지했다.

지난 17일(수) 열렸던 법학과와

정외과의 결승전에서 34대 33의 점수로 법학과가 승리했다.

17일(수) 열린 3위전에서는 경기 결과와 함께 3연패의 각 과에 응원 또한 불

민했던 결승전은 후반 1초를 남

기 34대 32의 접수에서 정외과가

자유루 3개를 얻어 역전

